

## 제3절 매력있는 관광·문화산업 육성

1. 관광진흥기반 구축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3.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4. 스포츠활성화와 도민 건강 증진
5. 경관이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 제3절 매력있는 관광·문화산업 육성

### 1. 관광진흥기반 구축

#### 1-1.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가. 관광자원 개발

관광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개발사업은 지정관광(단지) 38개소,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88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54개소 전체 315개소에 7조 7,11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 관광 기회확대와 지역별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지리산온천 관광지 등 277개소에 1조 9,17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에도 도림사 관광지개발 등 80개소에 75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테마공원, 체험·전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광지 추가지정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둔 지역 특화관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2-136>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업별	총 계획		2015 까지	2016	2017 이후	비고
	개소	사업비				
계	280	72,709	17,833	644	54,232	
지정관광지개발	38	55,396	8,082	69	47,245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88	14,054	7,013	405	6,636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54	3,259	2,738	170	351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개발팀장 김영신, 담당자 김상윤

나.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광역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여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0년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남해안 관광 벨트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조성 등 10개 사업에 1,268억원을 투입하는 관광프로젝트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 서남해안 연도·연륙교 개설 등으로 동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우리도가 21세기 국제 관광의 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까지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조성 등 4개소에 46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에는 52억원을 투자하여 여수 여자만 연안생태 휴양마을 조성, 강진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진도 조도 전망의 섬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아기자기한 리아시스 해안과 갯벌, 다도해의 일출일몰의 장관, 공룡화석 등 역사·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그 지역에 어울리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며, 특히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표2-137>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년도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민자
계		1,306	436	479	391
2015까지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조성 등 4건	462	242	220	
2016사업	진도 조도 전망의 섬 조성 등 2건	52	26	26	
2017이후	진도 조도 전망의 섬 조성 등 10건	792	168	233	391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개발팀장 김명신, 담당자 김상윤

#### 다.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

지리산권은 지리산·섬진강·쌍계사 등의 수려한 자연자원, 춘향전·심청전·토지 등의 문학자원, 화엄사·쌍계사 등의 불교자원을 보유하여 잠재관광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나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미흡하여 통합적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2008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여 2017년까지 10년 동안 구례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등 모두 14개 사업에 662억원을 투입하는 관광프로젝트 사업이다.

2013년까지 산수유테마파크 조성 등 13개소에 285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14년에는 84억원을 투자, 곡성 기차마을 조성 등 10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 등 천혜의 수려한 산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청정 경관 및 산악 경관은 물론 수많은 문학작품의 배경지로 다양한 예술·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권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표2-138>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년도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민자
계		662	311	339	12
2015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등 13개소	436	243	193	-
2016사업	섬진강변체험학습장 조성 등 13개소	60	36	24	-
2017이후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사업 등 13개소	166	32	122	12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개발팀장 김영신, 담당자 김상윤

## 라. 역사·생태체험형 도보여행길 조성

### 1) 남도 이순신 길, 「조선수군 재건로」 조성

우리 도에서는 정유재란시 이순신 장군이 구국을 위해 수군을 재건하며 이동한 역사길을 발굴하여 초·중·고등학생과 청년 등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교육장을 마련하고, 도보 및 자전거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역사문화체험 탐방길인 「조선수군 재건로」를 조성하였다.

「조선수군 재건로」는 총 사업비 39억원(국비 2,285백만원, 도비 225백만원, 시·군비 1,390백만원)을 투입하여 8개 시·군(구례, 곡성, 순천, 보성, 장흥, 강진, 진도, 해남)에 걸친 14개 코스, 500km(자동차길 380, 자전거길 40, 걷는길 80)로 조성되었다.

도에서는 8개 시·군 주요거점에 안내해설판 64개소를 설치하고, 구간별 테마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명량으로 가는 길)과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학교, 군부대, 여행사 등 1,349개소에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순신 관련 유숙지·행적지 복원 및 출전장 조성 등의 조형물 조성사업을 5개 시·군(순천, 구례, 곡성, 보성, 진도)에서 추진하여 도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리더십 캠프」에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등 명량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장군을 도와 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라도 백성의 호국 희생정신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개발팀장 김명신, 담당자 나소영

## 2)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정비

지역의 걷는 길과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건전한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48개소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지정하였다. 그 중 전남은 13개소이며, 2015년말 기준 3,287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스토리텔링 개발지원, 걷기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2-139〉 문체부지정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정 연도	탐방로명	구 간	연장 (km)	국 비 지원액 ('09~'15)
합 계		13개소	484.9	3,287
2009	정약용의 남도 유배길	다산수련원~천왕사~구림마을	65.7	230
2010	해남 땅끝길	땅끝마을~이진성지~강진	43	89
	슬로길	완도 청산도	42.2	98
	증도 모실길	신안 증도	42.7	200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나주 일원	45	1,290
2011	장성 갈재길	백양사~정읍경계	9.3	50
	곡성 섬진강길	구례~곡성~순창	88	100
	담양 수목길	관방제림	8.1	115
2012	무안 갯벌 낙지길	무안 현경면 해안	54	300
	보성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보성 벌교읍내	8	345
	화순 무돌길	화순.담양.광주	52	70
2013	신안 가거도 셋개제길	가거도 일주노선	10.9	200
	진도 아리랑길	진도읍~가계해수욕장	16	200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개발팀장 김명신, 담당자 나소영

### 마.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남 관광산업 발전의 최대 현안인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특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연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고, 전남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자연을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캠핑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캠핑은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캠핑에 대한 수요가 많고 캠핑문화 또한 진일보해 있다. 캠핑은 첨단화와 도시화로 사람들이 자연과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 인정받을 것이다.

2014~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응모하며 구례 지리산, 무안 갯벌, 영암 월출산 기찬뫼길 국민여가캠핑장 등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정책팀장 김종갑, 담당자 허승근

### 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1999년 10월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의 파올로 사투르니니(Paolo Saturnini) 전 시장을 비롯한 몇몇 시장들이 모여 위협받는 달콤한 인생의 미래를 염려하여 ‘치따슬로(cittaslow)’, 즉 슬로시티(slow city)운동을 출범시켰다. 이 운동은 슬로푸드 먹기와 느리게 살기(slow movement)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속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슬로시티 프로젝트가 비현실적인지는 몰라도 1999년 국제 슬로시티운동이 출범된 이래 2013년 6월까지 27개국 174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한국도 10개의 슬로시티가 가입되어 있는데 전남은 2007년 12월에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2015년말 기준 3개(담양 창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의 슬로시티 지역이 있다.

우리 도는 슬로시티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농촌관광의 선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유도하여 담양 창평슬로시티는 2014년 2월 19일, 완도 청산도 슬로시티는 2015년 8월 31일 법인을 설립하였다.

도에서는 슬로시티를 찾는 외국 관광객을 위해 2015년 4월, 3개 지역(담양, 완도, 신안)의 관광자료가 수록된 4개 국어 홍보물(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10천부를 제작하여 한국슬로시티본부 및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부하였다.

슬로시티 지정 이후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전년 대비 133천명이 감소(9.9%) 하였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5~6월에는 방문객이 주춤하였지만 7월부터 관광객 방문이 다시 활발해져 전년보다 139천명이 증가(11.5% 증) 하였다.

〈표2-140〉 연도별 슬로시티 관광객수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54,610	553,796	1,090,030	1,254,550	1,166,632	1,350,492	1,216,634	1,355,972
담양	12,240	25,254	73,500	100,450	151,270	170,502	141,230	163,906
완도	112,234	155,812	248,530	331,000	313,138	369,021	338,872	335,742
신안	230,136	372,730	768,000	823,100	702,224	810,969	736,532	856,324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정책팀장 김종갑, 담당자 윤재광



## 1-2.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환경 조성

### 가. 관광안내체계 구축

도 관광정보센터, 무안국제공항안내소, 목포역종합관광안내소, 광주송정역관광안내소, 아시아문화전당관광안내소 등 52개 안내소를 지자체와 민간자원 봉사자들이 운영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언어 불편해소 및 관광지에 대한 해설을 해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관광안내표지판의 지속적인 정비로 현재 3,055개소(도 설치 18, 시군 설치 3,037)개를 설치하여 관광안내정보 제공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정책팀장 김종갑, 담당자 허송근

### 나.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 공모사업인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전남 고유의 대표적인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 순천시 등 6개 시군에 개보수사업비 12동 427백만원과 체험 프로그램 6동 151백만원을 투자하였다.

2015년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은 나주시 등 9개 시군에 14동 889백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순천시 등 6개 시군에 5동 14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정책팀장 김종갑, 담당자 허송근

#### 다.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은 도내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15년도까지 목포시 등 16개 시·군에 36개소 37억원을 투자하였고, 2016년도에도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 상시점검 책임관(읍면동)을 지정 운영하여 관광지시설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밝은 화장실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의 관광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개발팀장 김명신, 담당자 김상윤

#### 라. 문화관광해설사 및 섬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관광현장에서 폭넓은 전문적 지식을 손쉽게, 관광객의 눈 높이에 맞춰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함으로 관광의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전남관광의 얼굴이다.

문화관광해설을 받은 관광객의 경우 체류시간이 늘어났으며, 재방문의사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했다.

2015년말 기준 도내에서는 29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중이며 그 중 외국어 해설사는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어 해설사에

비해 중국어,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해설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 해설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100시간(이론 50, 실습·현장 50) 수업을 이수하고 약 3개월의 실무수습 후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시·군 추천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산업팀장 김성훈, 담당자 정문선

#### 마. 관광진흥기금 조성·운영

관광진흥기금은 민간의 관광숙박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201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이다.

도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관광숙박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말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183억원에 이른다. 업체별 최대 융자규모는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는 5억원까지 이다.

특히 호텔업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호텔업 상환조건을 당초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관광숙박시설 신축 및 개보수시 트윈침대 설치 등의 시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하였다. 2015년까지 15억원의 융자 실행으로 6개소의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신축하였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정책팀장 김종갑, 담당자 윤재광

##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 2-1.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 가. 남도여행 으뜸상품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남이 국민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섬, 생태, 슬로시티 등 청정 전남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의 차별화 및 울돌목 거북선, 황포돛배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남도만의 독특한 여행상품 운영, 여행지 홍보 및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남도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객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남도여행 으뜸상품, 전남여행자 특수상품) 2종을 운영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도에서 정해진 주제에 맞게 여행사가 상품을 구성하여 응모하면 상품을 선정 후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공모분야가 힐링여행, 문화·과학, 남도별미, KTX연계 상품인 기차테마, 섬, 특화상품 6개로 전남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인기 관광지 외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기 위해 전남여행사 특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마케팅팀장 최석남, 담당자 이종호

#### 나. 전남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수도권 대중교통과 연계한 도내 주요 관광지 순환버스 운행으로, 개별 여행객의 여행편의 제공 및 남도여행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우리

도는 전남관광지 광역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를 4개 권역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고속철 개통에 맞춰 KTX와 남도한바퀴 묶음 할인상품을 출시하고, 국내 최대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와 제휴 마케팅을 추진하여 기아타이거즈 홈구장 관람객에게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남도한바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상파 오락프로그램인 KBS1 별똥별을 통해 홍보한 결과 KBS1 9시 뉴스 지방행정우수사례 등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올해 개최된 지역 국제행사인 광주 하계 U대회, 담양 대나무박람회, 명량대첩축제와 음식문화축제를 연계하여 「남도한바퀴」를 운행하여 전라남도 대표 여행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5년 12월말까지 총 13,623명이 이용하였다.

2016년에는 장흥, 강진, 해남, 영암과 공동으로 1박 2일 노선을 운영하고, 주중 운영노선을 2개 시·군씩 묶어 다양화하는 등 운영을 확대하며,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진행으로 「남도한바퀴」 브랜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마케팅팀장 최석남, 담당자 문창숙

#### 다.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학생들이 전남 관광과 체험을 통해 심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미래의 잠재고객인 학생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5년도에 초등학교 112개교 14천명, 중학교 222개교 30천명, 고등학교 256개교 36천명 등 590개교 80천명이 전남을 방문하였다.

앞으로도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남도소리, 춤 등 다양한

이벤트 지원과 도내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전담지도사 배치 등을 통해 우리 도를 찾는 수학여행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마케팅팀장 최석남, 담당자 최주오

#### 라. 이순신 리더십 캠프 운영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라도 백성의 호국·희생정신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역사적 장소인 울돌목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10월에 전라남도와 해남군·진도군이 공동으로 명량대첩축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3일간의 축제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중의 하나인 명량대첩 승리를 기리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명량대첩축제만으로는 울돌목의 관광상품화에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역사적 장소를 상시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전문가 특강, 거북선 승선 체험, 유적지 답사, 문화공연을 포함하여 1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 결과 2015년 12월 말까지 13기, 552명이 참여한 성과를 거뒀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산업팀장 김성훈, 담당자 김우형

#### 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상품 운영

우리 도는 광주, 전북 및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포함한 연계상품을 구성, 운영코자 2015년 11월에 호남권 관광 활성화 컨퍼런스와 병행하여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남도 한바퀴」 이용객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을 경유하는 노선(주 4회)을 2016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마케팅팀장 최석남, 담당자 문창숙

#### 바. 호남권 관광협력사업 추진

우리 도는 역사적·문화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인 광주, 전남, 전북의 상생협력사업으로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제안하였다.

호남권 관광벨트사업은 3개 시·도의 대표 관광지(여수세계박람회장~광주아시아문화전당~전주한옥마을)를 관광벨트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3개 시·도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관광과장 회의를 2015년 4월 10일 여수와 2015년 5월 15일 군산에서 개최하여 ‘호남권 관광진흥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6월 26일 창립하였다.

협의회는 당연직 2명(국장, 과장), 위촉직 8명(유관기관, 전문가, 관광사업 종사자) 등 시·도별 10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호남권 관광 진흥을 위한 4개 분야 11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공동사업으로는 중국 특화 관광객유치 마케팅활동 전개, 해외 관광객 유치 공동상품 구성 및 홍보, 국내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전개, 3개 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컨퍼런스」 개최 등이다.

2015년에는 해외관광박람회 4회 참가하여 공동홍보관을 운영(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쿤밍) 하였으며,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를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목포에서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인 한국 방문의 해’ 관련 마케팅 예산을 시·도별 50백만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시·도별 해외 지사 및 사무소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합의하였다.

〈표2-141〉 위촉직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유관기관(3)	전라남도 관광협회	회 장	이한철
	전남관광(주)	대표이사	송영진
	전남발전연구원	생태문화 연구실장	곽행구
전문가(1)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 수	김병원
종사자(4)	대한숙박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회 장	민정기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회 장	이병규
	전라남도문화관광 해설사협회	회 장	이연숙
	순천시 관광두레	PD	모세환

\* 위촉기간 : 2015. 6. 26. ~ 2017. 6. 25.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정책팀장 김종갑, 담당자 윤재광

#### 사.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운영

그 동안 우리 지역에 1박을 하고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유관광 상품을 운영하다가 2015년도는 특화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고급관광을 운영하는 전환점이 된 해였다.



‘남도미식 웰빙여행’(중국), ‘중국 인연지 탐방’(중국), ‘봄가을 계절 여행’(홍콩·동남아), ‘남도 문화체험여행’(일본) 등 주요 국가별 선호도를 분석한 특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음식만들기 체험’, ‘궁중의복 체험’, ‘천연염색 체험’, ‘녹차음식만들기 체험’ 등 지역 특화체험프로그램을 가미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강화하였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지속적인 해외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바이럴, 한류스타를 이용한 한류마케팅으로 전남관광의 인지도와 매력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Ctri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남 여행상품 9종을 개발 운영하였고 특히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남도 추천여행코스 개발 및 홍보로 많은 온라인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마케팅팀장 최석남, 담당자 김영주

#### 아. 정기성 전세기 운항 확대

중국 정기성 전세기 운항을 통해 대규모 중국관광객을 유치했다. 2013년도 2개 노선, 148회 운항에 19천명 입국에 이어 2014년에는 7개 노선, 176회를 운항하여 26천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다. 2015년은 14개 노선, 230회를 운항하여 32천명의 외국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 닝보, 난징, 쉬저우, 구이양, 린이, 스좌장, 충칭, 이우 등 신규 8개 노선과 텐진, 선양, 정저우, 항저우, 난창, 칭두 등 기존 6개 노선등 총 14개 노선을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표2-142〉 연도별 무안국제공항 외국인 입국현황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411	3,381	2,745	3,582	4,104	4,592	23,591	31,884	37,559

표에서 보듯이 무안공항에 정기성 전세기가 운항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외국인 입국이 2012년 대비 무려 5배에서 2015년은 8배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5년도 한해에는 정기성 전세기 유치로 인해 약 14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공항 활성화, 공항 면세점 매출액 증가, 각종 관광객수용 인프라개선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전남도 인지도 상승 등 간접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마케팅팀장 최석남, 담당자 김영주

#### 자.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크루즈관광은 고급형 관광으로서 최근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 중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에 입항한 국제 크루즈 관광객은 국제행사 및 메가에벤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5년에는 메르스의 여파와 일본 엔저의 영향으로 기항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전남 크루즈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국제크루즈관광객 종합안내센터를 8월에 문을 열었으며, 2015년말 여수항을 8만톤급에서 15만톤급으로 시설을 확대하여 크루즈관광객 입항여건을 개선하였다.

〈표2-143〉 연도별 국제 크루즈관광객 입국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항차	12	18	14	1
인원	16	47	53	1.1

우리 도는 2015년 해외 선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해외에서 전남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과 팸투어 등 실효성있는 유치전략을 통해 2016년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마케팅팀장 최석남, 담당자 곽부영

## 2-2. 지역축제 운영의 내실화 추진

### 가. 시·군 축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축제를 포함해서 88개의 축제가 22개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봄(3~5월)에는 36개, 여름(6~8월)에는 16개, 가을(9~11월)에는 31개, 겨울(12~2월)에는 5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역축제 중에서 1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41개 축제를 지정 관리하여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명품축제로 육성하고, 1시군 1대표 축제 지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문화관광축제에 강진 청자축제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최우수축제, 담양 대나무축제가 우수축제, 목포 항구축제, 보성 다향제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전국 44개 축제 중 7개로 최다 선정되었으며, 국비 1,046백만원도 지원받았다. 또한 도 대표축제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명량대첩축제, 영광 상사화축제, 무안 연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선정하여 1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축제 통폐합을 통한 축제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8개 시군, 11개 축제를 유사 중복 축제로 통폐합하였다.

또한,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꽃축제, 강진 청자축제와 정남진 장흥 물축제 그리고 목포 항구축제가 공동 협력을 추진해 홍보비 예산을 140백만원을 절감하였고,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명량대첩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담양대나무축제를 재단법인에서 운영하였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관광산업팀장 김성훈, 담당자 김우형

### 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라남도, 담양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주관하고 있다.

‘자연을 담은 남도 밥상’을 주제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죽녹원과 전남도립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대 축제로써 도내 시장·군수 및 도민, 남도음식명인 등이 참여하여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축제장과 주변 관광지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근지역 관광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남도음식전시관에는 주제관, 명인관, 전통주관, 시·군관, 아시아관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음식전시관은 면적을 확대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남도음식명인 음식시연 및 시식체험, 시군 전통주 시음 등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시음식, 일반부, 고등부, 대학부 남도음식 경연 대회, 단품요리 대회, 담양특산품인 대나무를 활용한 죽순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남도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남도음식체험(5회), 매생이 굴 떡국 시식(1회), 남도음식 단체오찬(2회) 등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음식판매장터에서는 다양한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축제산업팀장 김성훈, 담당자 정문선

#### 다. 명량대첩축제 개최

명량대첩축제는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 백성들의 구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란 슬로건으로 울돌목이 위치한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관광지 일원에서 명량대첩의 승전 기념일을 전후한 9월말에서 10월초에 개최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축제로서 해남, 진도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명량대첩의 역사성과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 해전재현, 출정식 퍼레이드, 만가행진, 평화의 헌화, 씻김굿은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1600여명의 지역 주민과 문화 예술단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계승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130척의 실제 선박을 활용한 해전재현에 바쁜 어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남과 진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장 운영 및 판옥선 만들기, 투구잡옷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4,000여 명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앞으로도 명량대첩축제를 역사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축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관광과장 안기홍, 축제팀장 김성훈, 담당자 정문선

### 3.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 3-1. 도민의 문화 향유기반 확대

##### 가.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문화복지를 향유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문예회관 1개관, 박물관 1개관, 미술관 1개관, 공공도서관 1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문예회관 25개소, 박물관 53개소, 미술관 24개소는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따르는 공립문화시설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표 2-144> 건립중인 공립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소재지 (시·군)	사업기간	규 모 (연면적)	총사업비	추진상황	
					공정	준공
남악 다목적 문화진흥 센터	무안군	2015~2017	지하 1층, 지상 3층 (8,482㎡)	20,700 (국 3,378 도 231 군 17,091.)	공사중	(2017. 1월 완공예정)
고흥 분청사기 문화관	고흥군	2008~2013	지상 3층 (9,302㎡)	26,357 (국 10,543 군 15,814)	공사중	(2017. 7월 개관예정)
신안 김환기 미술관	신안군	2014~2017	지상 2층 (2,890㎡)	13,000 (국 2,200 군 10,800)	공사중	(2017. 5월 완공예정)
광양 희망도서관	광양시	2015~016	7,287㎡	6,000 (국 2,400 시 3,600)	공사중	(2017. 5월 완공예정)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예술팀장 이상권, 담당자 김기성

## 나. 작은 영화관 조성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인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소규모의 영화관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로 2개관 100석이내의 소규모 상설 영화관을 조성하며, 공공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

작은 영화관은 2D, 3D 상영관 등 대도시 영화관에 뒤지지 않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관람료는 시중 영화관의 60% 수준으로 낮으며, 전국 동시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2015년 10월, 전남 1호로 장흥군에서 개관한 「정남진 시네마」는 비수기(10~11월) 동안에도 관람객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4년 착공한 고흥군의 작은영화관은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2016년 2월 개관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해남과 완도가 작은영화관 조성을 추진중에 있고, 2016년에는 진도·곡성·보성 등이 작은영화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영화관이 없는 도내 16개 시·군 전체에 작은 영화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담당자 박순미



#### 다.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도내 상설 영화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취약하여 영화관람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찾아가 최신 영화 등을 상영해 줌으로써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혜택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으로 2014년 시범운영에 이어 2015년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연 50회 이상 1만명 이상의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예술회관 및 학교강당 등 영화상영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최신영화 상영 및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체험을 포함한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운영 단체를 선정할 때 최소 단가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영화작품, 상영장비, 부대공연 등) 등을 고려해 선정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기(상·하반기) 및 수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 12월 30일 기준, 13개 시·군에서 55회를 상영하여 총 6천 3백여 명의 도민이 이용하였다.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예술팀장 이상권, 담당자 김영빈

#### 라. 1읍면 1도서관 조성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읍면 1도서관 조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43개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1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64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301개소의 작은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한편, 22개 시군 229개 읍면 중에 도서관이 없는 읍면은 59개 읍면으로 매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학교마을도서관·마을도서관 조성을 통해 1읍면 1도서관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농간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예술팀장 이상권, 담당자 이원기

#### 마. 전라남도립미술관 건립

예향전남의 미술문화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27번지 외 9필지 부지에 2018년 11월 개관 목표로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술관은 부지면적 1만 7천㎡, 건축 연면적 1만 2천㎡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추진 첫해인 2015년에는 미술관 건립 기본용역,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대부분 이행하고 2016년부터는 미술관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16년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부지역에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면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박람회장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등 전남 동부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도립미술관은 지역미술의 거점으로써 도내 공·사립 미술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술인과 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전남 문화 예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담당자 김양일

### 바.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운영

1986년 창단된 전남도립국악단은 그동안 작품발표 및 연습 등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어 도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해 왔고, 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에는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전용공연장 확보를 위해 2015년 5월 30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에 남도소리올림터를 개관하였다.

남도소리올림터는 연면적 5,193㎡에 지상 3층, 558석 규모로 연습실과 사무실, 자료실, 휴게실, 장비 보관실로 이루어졌다. 외형은 인접한 한옥지붕 모양의 도립도서관과 어울리고, 전통문화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한옥형으로 디자인하였고, 공연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상설공연’ 및 대관 등을 통해 국내·외 유명 공연과 예술인의 공연작품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전남 문화예술의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담당자 김양일

### 사.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원불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원불교 영산성지 인근인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산99-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부지 29,563.5㎡, 건축연면적 6,638㎡)로 국제마음훈련원이 건립되고 있다. 국제마음훈련원에는 국제마음훈련센터, 숙박 및 연구시설, 한국문화체험시설, 다목적동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국제마음훈련원이 개관되면 국내외 명상산업을 주도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건립공사는 2016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개관은 2016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천주교 평신도 봉사단체인 레지오마리아(1953년 헨리 신부의 주선으로 한국 최초로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시작)가 처음 시작된 목포 산정동 (구)카톨릭병원 자리에 레지오마리아 나눔봉사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

나눔봉사기념관은 전시실, 다목적강당, 방문자 숙소 등 8,458㎡의 규모로 건립되는데 나눔봉사기념관이 개관되면 한국 최초의 천주교 평신도 봉사단체의 역사적 가치를 부가하여 천주교 성지화 및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건립공사는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개관은 2017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예술팀장 이상권, 담당자 한광신

## 3-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산업 육성

### 가. 전남 민속예술축제 개최

전남지역 민속예술 발굴과 전수 한마당인 ‘전남민속예술축제’는 1966년 ‘남도문화제’로 시작하여 2015년 41회째를 맞은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잊혀져가는 남도의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및 전승에 초점을 맞추고 멋과 흥이 어우러진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문화축제이다.

2008년도부터 청소년부를 신설하여 현대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선조들의 얼과 남도의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전남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남 해남 두륜산도립공원 잔디구장에서 22개 시군 대표 35개팀(일반 20, 청소년 15)이 참여하여 민속놀이, 농악, 민요 등의 경연을 펼쳤으며 일반부에서는 화순군 내평리 ‘길쌈노래’가, 청소년부에서는 나주시 ‘다시들노래’가 대상을 수상하여 2016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우리 도를 대표해 참가하였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예술팀장 이상권, 담당자 김영빈

### 나. 남도 역사소설 도 누리집 연재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2015년부터 지역 관련 역사소설을 우리 도 누리집에 연재하여 지역 작가의 창작공간 제공 및 전남 역사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후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7년간의 삶을 그린 ‘이순신의 7년’이란 제목으로 연재중에 있다. 성철스님, 법정스님, 다산 정약용 등 고승과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소설로 다루어 왔던 보성출신의 정찬주 작가가 집필하며, 1952년 임진년에 발발하여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에서 거북선을 앞세워 옥포해전, 한산도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에서 승리를 이끈 이순신장군의 이야기를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 내용에는 충무공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호남의 장수와 의병, 승군과 관군, 이름 없는 민중의 역할까지도 재조명하고 있으며, 전라도의 맛깔나고 생생한 사투리를 더해 실제감을 극대화시켜 지역민과 많은 독자들로 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52회까지 연재된 ‘이순신의 7년’은 2015년말 기준 독자 조회수 55,535회, 독자 댓글 1,246명, 시각장애인용 음성소리책 서비스 이용 22,430회에 이르고 있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예술팀장 이상권, 담당자 김영빈

#### 다.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 건립

2012년부터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실감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총예산 422억원을 투자하여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다.

거점 공간인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국립전파연구원 옆에 연면적 4,08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5년 4월 착공식을 가지고 2016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에는 실감콘텐츠 제작, 제품 테스트, 품질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품 테스트실, 품질인증 시험실, 교육실 등을 구축하여 실감미디어 산업체와 관련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산학연 연계시설로 운영한다.

또한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 내 4층(1개층 증축)에 전남 ICT기업 지원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ICT 기업유치와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담당자 문인식

## 라. 문화·관광자원 활용 글로벌 콘텐츠 개발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화순운주사의 천불천탑을 배경으로 한 어린이 국악체험 뮤지컬 “얼씨구나 별떡, 와불와불”은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무안군, 광주광역시, 화순군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영암 무화과, 해남 고구마 등 전남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쇼인 방송영상콘텐츠 “올댓레시피”는 2015년 11월말부터 목포 MBC와 여수MBC에서 방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 여행 가이드 웹툰 등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콘텐츠와 도내 전시관, 박물관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로 관람객 유치 및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담당자 문인식

#### 마. 콘텐츠분야 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전남지역의 열악한 콘텐츠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업육성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 건립을 포함한 콘텐츠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입주지원시설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SW 품질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 발굴에서 부터 교육 및 경영지원, 사업화까지 손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대학과 연계해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투자유치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국내·외 문화콘텐츠 기업유치에도 적극 나서 도내 ICT기업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담당자 문인식

#### 바.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자원화 사업

영호남 역사고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쇠락한 도시를 전통문화도심으로 재생하고자 전라남도, 경상북도, 나주시, 상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 8월 5일 공동추진 업무협약(전라남도, 경상북도, 나주시, 상주시)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4일 경북·전남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동서화합 포럼”에서 상생협력과제로 선정하였다.

2014년 12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10월



18일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자원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다.

또한 영호남 역사문화자원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영호남 역사인문 포럼을 상주와 나주에서 2015년 9월과 2015년 12월에 개최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잘 준비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2017년 관련 예산의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담당자 문인식

### 3-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네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절집, 석탑)·전적(옛날 책)·고문서(옛날의 관청이나 개인 문서)·회화(그림)·조각(불상)·공예품 등
-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전통생활 속에서 전래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
- 기념물 : 고인돌·패총(조개무지)·고분(옛 무덤)·성곽(성터)·동물·식물·화석·동굴·지질 등
-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

지정권자에 따라 분류하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전라남도 기념물)와, 문화재 자료(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자료를 구분없이 지정)가 있다.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두 종류를 합해 보통 “지방문화재”라 한다. 지정문화재 아래 단계에는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세계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하여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하는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인류무형유산, 기록유산에 대해서는 세계기록유산등재를 하고 있다.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매장문화재(토지, 해저, 건조물, 지질 포장 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재팀장 김차진, 담당자 김진현

### 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수·정비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인류가 이룩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전라남도에서는 총 1,124점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년 11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재 보존 중기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부터 정비해 오고 있으며, 학술 조사 및 고증을 통한 문화재의 원형복원과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전국 4위의 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와 민·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수 조사를 하는 등 문화재 가치를 검토하여 문화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임에도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말 현재 1,124점(국가지정 377, 도지정 747)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정문화재 수량으로 전국 4위로,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후손에게 전승·보존하고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남도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lt;표2-145&gt; 국가·도지정 문화재 지정현황

(단위 : 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998	1,005	1,027	1,045	1,071	1,088	1,096	1,108	1,109	1,124
국가지정	299	18	332	335	348	356	366	369	374	377
도 지 정	699	87	695	710	723	732	730	739	735	747

## 2)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

해양 중심의 호국항쟁 문화유적을 1998~2003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복원 정비하여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다도해 해양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32건과 도지정 문화재 175건에 총 사업비 638억원을 투입, 문화재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였다.

&lt;표2-146&gt;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31	492	359	627	410	753	369	561	407	638
국가지정	204	391	228	528	271	654	223	459	232	536
도 지 정	127	101	131	99	139	99	146	102	175	102

또한, 국가지정·도지정·등록문화재 등 605개의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미한 훼손사항은 신속히 복구하는 등 문화유산 돌봄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재팀장 김차진, 담당자 김진현

## 나.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

무형문화재는 연극·무용·음악·공예기술·민속놀이와 의식 등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그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도지정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뉜다. 전라남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진도의 씻김굿 등 17종에 22명의 보유자가 있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여수의 거문도 뱃노래 등 49종에 보유자는 49명으로 총 66종에 71명의 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월 12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월 80만원씩 전수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여 전통 기·예능을 전승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15개 시군, 22개소의 전수교육관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인과 함께하는 교육·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승활동 장면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기록화사업으로 도서지방에서 전승되는 고령화된 종목부터 연차적으로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곡성 죽동농악 등 12종을 DVD로 제작하여 전국 행정기관 및 문화재 관련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에서는 단절위기에 놓여있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영상 기록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및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다.

&lt;표2-147&gt;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지정일	보 유 자 (조교)	종 별	소 재 지
8	강강술래	1966. 2. 15	박 양 애 박 용 순 김 종 심 박 종 속 차 영 순	창 " " " "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군내면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 진도읍 해남군 문내면
11-6	구례 잔수농악	2010. 10. 21	보 존 회		구례군 구례읍
28	나주씻골나이	1969. 7. 4	노 진 남	무명짜기	나주시 다시면
31	낙죽장	1969. 11. 29	김 기 찬	낙죽	순천시 송광면
32	곡성 돌살나이	1970. 7. 22			곡성군
51	남도들노래	1973. 11. 5	박 동 매 이 영 자	창 "	진도군 지산면 진도군 진도읍
53	채상장	1975. 1. 29	서 신 정	채상	담양군 담양읍
60	장도장	1978. 2. 23	박 종 군 한 상 봉	장도 낙죽장도	광양시 광양읍 곡성군 목사동면
72	진도씻김굿	1980. 1. 17	박 병 원	약사	" 진도읍
81	진도다시래기	1985. 2. 1	강 준 섭 김 귀 봉	거사 사당	진도군 진도읍 " 임회면
83	구례향제줄풍류	1985. 9. 1	이 철 호	단소	구례군 구례읍
91	제와장	1988. 9. 1		제와	장흥군
96	옹기장	1990. 5. 8	정 윤 석	채바퀴타래기법	강진군 칠량면
100	옥장	1990. 2. 1	장 주 원	옥장	목포시 산정동
115	염색장	2001. 9. 6	정 관 채	"	나주시 대호동
123	법성포 단오제	2012. 7. 23	보 존 회		영광군 법성면

&lt;표2-148&gt;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지정일	보 유 자	종 별	소 재 지
1	거문도 뱃노래	1972. 1.29	정 경 용	선소리	여수시 삼산면
5	남도 노동요	1977.10.20		선소리	
6	화순 한천농악	1979. 8. 3			화순군
7	현천 소동패놀이	1982.10.15	정 흥 수	예 능	여수시 소라면
12	광양 궁시장	1986. 9.29	김 기	기 능	광양시 광양읍
14	나주반장	1986.11.13			나주시
15	참빗장	"	고 행 주	기 능	담양군 담양읍
17	우도농악	1987. 8.25	김 동 언	설장고	담양군 봉산면
		"	문 한 준	상 쇠	영광군 영광읍
18	진도북놀이	"	김 길 선	예 능	진도군 지산면
		"	박 강 열	예 능	" 지산면
		"	이 희 춘	예 능	" 의신면
19	진도만가	"	김 기 선	만 가	" 지산면
		"	오 주 창	만 가	" 지산면
20	우수영 부녀농요	1988.12.21	이 인 자	예 능	해남군 문내면
21	장산도 들노래	"	강 부 자	예 능	신안군 장산면
22	가거도 멀치잡이노래	"	김 창 대	셋소리	" 흑산면
23	담양 죽령장	1990. 2.24	박 성 춘	기 능	담양군 봉산면
24	송천 달집태우기	1994. 1.30	김 재 철	세시놀이	순천시 월등면
25	해남 진양주	"	최 옥 림	민속주	해남군 계곡면
26	진도 전통흥주	1994.12. 5			진도군
27	고흥월포농악	"			고흥군
28	완도장자리당제와당굿	1995.12.26	강 양 대		완도군 완도읍
29	판소리	1996.10.24	김 향 순	동편제흥보가	여수시 미평동
		"	김 순 자	"	목포시 용당동
		"	박 방 금	동편제수궁가	목포시 산정동
		"	추 정 남	판소리고법	해남군 해남읍
		"	안 부 덕	동편제 춘향가	목포시 석현동
		"		1인창무극	
		"		심청가	영광군
30	고흥한적들노래	1996.10.14	박 반 심	설소리	고흥군 도덕면
			백 형 길	설소리	고흥군 도덕면
31	탱화장	1996.10.14		불 화	
32	순천 구산용수제	1997. 5.15		세시놀이	순천시 주암면
33	시조창	1999. 7. 5		시조창	
34	남도잡가	2001. 9.27	강 송 대	잡가	진도군 의신면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지정일	보 유 자	종 별	소 재 지
35	곡성 죽동농악	202. 4.20	박 대 업	상쇠	곡성군 곡성읍
36	청자장	2004. 2.13	이 용 희	청자제작	강진군 대구면
37	웅기장	2013.12.19	이 학 수	채바퀴타래기법	보성군 미력면
38	강진 신전들노래	2005.12.27		들노래	강진군 신전면
39	진도 소포걸군농악	2005.12.27	김 내 식	설북	진도군 지산면
		"	홍 복 동	설농기	진도군 지산면
40	조도 닳배노래	2006.12.27	조 오 환	풍장	진도군 의신면
41	무안 상동 들노래	"	고 윤 석	들노래	무안군 무안읍
42	전남의례음식장 장식음식	2008. 4.11		의례음식	전남 일원
		"	서 용 기	장식음식	무안군 현경면
43	순천 삼설양국	2008.12.26	박 경 자	전통국	순천시 대룡동
44	낙죽장	2009. 3.20	조 운 창	낙죽	담양군 담양읍
		2009. 3.20	이 형 진	"	담양군 봉산면
45	보성 강하주	2009. 7. 3			보성군
46	담양 황금들노래	2009.12.31	남 귀 희	선소리 들노래	담양군 수북면
47	가야금 산조	2010.5.27	선 영 숙	김병호류가야금산 조	화순군 이서면
48-1	담양 선자장	2010.5.27	김 대 석	접선장	담양군 담양읍
49	악기장	2011.9.20	강 사 원	장구제작	장성군 장성읍
50	조선장	2013.8.5	조 일 옥	전통한선 제작	신안군 흑산면
		"	심 정 후	"	목포시 서산동
		"	마 광 남	"	완도군 완도읍
51	화순도장리밭노래	"	민속보존회	밭노래	화순군 도암면
52	신안 씻김굿	"			신안 일원
	장산도 씻김굿	"	이 귀 인	씻김굿	신안군 장산면
		"	진 금 순	씻김굿	신안군 장산면
	비금도 씻김굿	"	유 정 자	씻김굿	신안군 비금면
53	영암 갈곡들노래	2013. 8. 5	보 존 회	들노래	영암군 신북면
54	화순 우봉들노래	2013. 8. 5	보 존 회	들노래	화순군 춘양면
55	초고장	2013.12.19	임 채 지	짚풀공예	곡성군 오곡면
56	목조각장	2013.12.19	김 규 석	다식판, 떡살제작	담양군 대전면
57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	2013.12.19	보존회	전어잡이소리	광양시 진월면
58	고흥 훈맛이굿	2015. 8. 6	김 명 례	훈맛이굿	고흥군 도화면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재팀장 김차진, 담당자 안용섭



#### 다.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남은 수려한 자연자원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문화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운동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15년까지 163개국 1,032개소가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각국의 국가대표적인 잠정등록 목록도 171개국 1,631개소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2건, 잠정목록 15건으로 이 중에서 전남은 세계유산 1건, 잠정목록 7건이다.

전남의 세계유산은 2000년에 등재된 ‘화순 고인돌유적’이 있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이라는 명칭으로 세 곳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는데, 선사시대 고인돌유적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전남에는 2만 여기의 고인들이 분포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밀집 분포지역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남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7개소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 15개소 가운데 47%에 이른다. 자연유산은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서남해안 갯벌이며, 문화유산은 강진 고려청자 요지, 염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장성 필암서원), 한국의 전통산사(순천의 선암사, 해남의 대흥사) 등이다.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적 청정해역으로 잘 알려져 2010년 잠정 목록에 올랐고 2011년에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9월에는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 자문과 평가를 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자문을 거쳤다. 여러 차례의 국내외 전문가 포럼과 국제 비교연구와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구성 및 학술연구 등을 통해 등재신청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서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해 온 선비정신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건립 이후 현재까지 강학과 의례가 계속되고 있는 전국 6개 시도 9개 사액서원은 2011년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구성되어 국제학술대회, 워크숍, 학술조사를 거쳐 2015년 1월에는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고, 2015년 9월 국제전문기구(이코모스, ICOMOS) 실사 평가도 마쳤다. 우리 도의 경우 도학, 절의, 문장으로 뛰어난 하서 김인후선생(1510~1560)과 문인학자인 고암 양자징 선생을 배향한 장성의 필암서원이 잠정목록 등재 대상이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전국 7개 산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우리 지역은 국가 사적과 명승 중 조선시대 이후 원형 유지가 잘 된 순천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가 대상이다.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구성되어 학술회의, 조사연구 등이 진행중에 있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청자가마 대부분이 분포된 지역으로 1994년에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래 청자박물관 개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발굴조사와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염전은 신안과 영광 천일염전을 대상으로 2010년에 잠정목록에 올라 학술조사와 비교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행정중심지인 읍치(邑治)이자 중세의 역사 도시로서 500년의 지속성을 지닌 정주 공간으로 가치가 뛰어나, 2012년에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국제학술대회, 민속 조사 연구 등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 잠정목록 등재가 논의되고 있는 유산으로는 지리산 역사

종교경관,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담양 누정제영원림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재팀장 김차진, 담당자 김희태

#### 라.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활용

전남이 갖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 조사와 임진왜란기 호남민중의 역할 재조명을 통해 유적의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선양·활용방안을 연구하고 호남정신 고취와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임진·정유재란에 참여한 수군을 중심으로 인물·유적·사료·민간 전승담 등 문화자원 일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순신 장군 및 호남민중과 호남의병 등에 관련된 유적을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발굴해 육성하고 유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호남민중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묻혀있던 호남민중과 호남의병의 역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유적·사료·일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스토리텔링 작업 등 선양·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문화예술과장 배유례, 문화재팀장 김차진, 담당자 김진현

## 4. 스포츠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

### 4-1. 체육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

#### 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우리 도는 스포츠 인프라시설 확충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2015년까지 476,593백만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25개, 체육관 60개(구기, 투기, 생활체육관 포함) 등 82개소를 완공하고, 다양한 전국 대회 및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도내 읍·면·동에 1,05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고와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23개소(완료 17, 건설중 6),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123개소(완료 114, 건설중 9),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5개소(완료 5),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24개소(완료 18, 건설중 6)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총사업비 53,520백만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1개소, 체육관 5개소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표2-149> 2015년 건설 중인 시군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6	53,520	20,270	33,250
운동장	1	17,700	4,450	13,250
체육관	5	35,820	15,820	20,000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스포츠마케팅팀장 김규웅, 담당자 조승일

나. 생활체육활성화 및 도민 건강증진

우리 도는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생활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및 시·군 생활체육회를 운영하여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북과의 생활체육 교류를 통하여 영호남 상생 협력에도 기여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5종목 6개 부문에서 1위로 입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표2-150> 생활체육 주요행사 현황

행 사 명	추진시기	장 소	추진 실적	
2015 전남생활체육대축전	10.25.~10.27.	무안군	22시·군 20천명	
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	연중	도내일원	22종목	
종목별 동호인대회	연중	도내일원	36종목 23,300명	
어르신생활체육대회	4.9.~4.10	무안군	12종목 1,800명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5.14~5.17	경기도	36개종목 1,200명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8.4	화순군	8개종목 1,000명	
전남-경북 생활체육교류	참가	6.3~6.5	경북 구미	5개종목 70명
	초청	10.26~10.28.	전남 무안	5개종목 70명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생활체육팀장 강 학, 담당자 김은진

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우리 도는 직장팀을 창단하면서 비인기 종목의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축구, 농구 등의 인기종목 보다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기로 방침을 정하고 1978년 12월에 남·여 일반 체조팀(10명)을 시작으로 1979년 1월에는 여자일반부 펜싱팀(13명)을 창단 운영해오다가 1998년 1월과 3월에 남자 근대 5종팀(2명) 및 여자 일반부 정구팀(10명)을 창단하였다.

2004년 4월에 근대 5종팀 5명을 증원하여 총 5개팀 39명으로 2015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체조팀을 해체하고 여자근대 5종팀과 카누팀을 대체 창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道 직장팀은 2015년도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펜싱단체전 동메달, 정구 단체전 및 개인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체육지원팀장 박형정, 담당자 박일규

## 4-2. 스포츠 마케팅 강화

### 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운동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은 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기후조건이 좋고 훈련 경비도 저렴한 국내 남부지방을 선호하면서 전라남도가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급부상하여 매년 우리 도를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도는 겨울철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동계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에 있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부대시설 확충,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를 방문하여 수도권 지역 국가대표 선수단 유치를 추진한 결과, 2015년에는 57개 종목 4,241팀 137천명(연인원 1,045천명)의 동·하계 전지훈련팀이 전남을 방문해 83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표2-151> 최근 3년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 동계전지훈련 유치실적

구 분	2013년 동계	2014년 동계	2015년 동계	전년대비 증감(%)
연 인 원	548,182	575,859	774,248	34.4%증
인 원	74,231	84,468	83,887	0.7%감
유치종목	39	40	42	5%증
팀 수	2,440	2,302	2,931	27.3%증
경제효과	55,537	583	615	5.5%증

## ○ 하계전지훈련 유치실적

구 분	2013년 하계	2014년 하계	2015년 하계	전년대비 증감(%)
연 인 원	253,316	211,389	271,133	28.3%증
인 원	53,644	49,312	53,653	8.8%증
유치종목	36	44	49	11.4%증
팀 수	2,283	1,212	1,310	8.1%증
경제효과	256	214	215	0.5%증

\* 경제효과 산출기준 : 1인 1일당 79,447원(전남발전연구원 2015)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체육지원팀장 박형정, 담당자 이병륜

#### 나. 2015 광주 U대회 성공개최 지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전남이 상생 협력을 통해 대회 준비와 선수단 맞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도 본청에 U대회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유니버시아드조직 위원회에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45명을 파견해 대회 준비를 지원 하였으며, 도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를 잘 치르도록 나주종합사격장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 20개 경기시설을 국제규격에 맞게 개보수 하고, 경기진행을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였다.

한편, 대회 준비기간 중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참가선수와 방문객 등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광주·전남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써 메르스 우려를 불식시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체육지원팀장 박형정, 담당자 이병륜



#### 다. 전국규모 골프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우리 도에서는 매년 인지도가 높은 전국규모 골프대회를 유치·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골프장 홍보를 통해 국내·외 골프관광객 유치와 주니어 골프 우수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도지사배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 및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를 각각 9회, 10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국의 초등학생 150명, 중·고등학생 950명과 학부모 및 지도자 1,500여명 등 총 2,700명이 참가하는 골프대회를 무안CC와 영암아크로CC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KLPGA, KPGA 등 프로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발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 한국초등학교 골프연맹회장배 전국학생 골프대회 등 다수인원이 참가하는 13개 대회를 유치한 결과, 연인원 59,351명이 우리도를 방문하여 4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도내 골프장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여 전남이 골프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스포츠마케팅담당 김규웅, 담당자 정경숙

### 4-3.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대회 육성

#### 가.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

##### 1) 국제대회 유치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으로 경주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AFOS(Asia Festival Of Speed)’는 F1대회 이후 첫 국제대회로 세계 20개국 드라이버들과 70여 대의 슈퍼카가 참가한 가운데 201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기는 모터스포츠 축제로 진행하였다

또한, 모터스포츠를 통한 한국·중국간 우호 증진을 위해 2014년 첫 교류전을 개최하였던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2015년에는 일본이 가세하면서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로 확대되었다.

‘한·중·일 슈퍼바이크 대회’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정상급 모터사이클 선수 150여명이 참가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 및 모터스포츠 우호발전을 도모하였다.

##### 2) 다양한 국내대회 개최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국내 프로 및 아마추어 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국내 유일 ‘챔피언십’ 대회인 ‘CJ 슈퍼레이스’를 비롯하여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등 프로 대회가 개최하였으며 국내 최대 아마추어

레이싱인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과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모터사이클 대회인 코리아 슈퍼바이크 등 다양한 대회도 개최하였다.

2015년부터는 레이서를 꿈꾸는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주장(KIC사업소)이 주최하는 ‘KIC-CUP 투어링카’를 신설하여 레이싱 입문 과정에 맞춘 클래스로 구성하여 모터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에는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를 총 결산하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서킷 중 유일하게 자동차 레이싱 대회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카트, 모터사이클, 드래그레이스, 드리프트 등 다양한 종목의 500여대 차량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스피드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 K-POP 콘서트, 사생대회,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와 더불어 모터스포츠 콘텐츠 기반 체험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추진부

F1대회지원담당관 오재선, 대회운영팀장 강희상, 담당자 조석현

## 나.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활성화

### 1) 시설현황

2010년 F1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설된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의 부지 면적은 1,793천㎡로 축구장의 170배에 달하며, 건축 연면적은 72천㎡로 그랜드 스탠드, 피트.패독 빌딩 등 66개 건물이 들어서 있다.

서킷 총 길이는 5.615km로(직선 구간 1.2km 포함) 국내에서 유일하게 1등급 서킷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는 이와

같은 1등급 서킷이 32개가 있다.

또한, 1.2km의 직선 구간이 포함된 총 길이 5.6km의 서킷을 중심으로 주변에 카트경기장, 오프로드 경기장, 오토캠핑장 및 야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 전경〉

## 2) 운영현황 및 경주장 발전 계획

2011년 경주장 임대를 시작한 이후 4년만에 독자 운영으로 전환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국내 프로모터 및 동호회의 예약 1순위로 각광받으며 매년 임대일수가 증대되고 있다.

영암경주장은 2011년 첫째 106일 임대되었던 것에 반해 매년 점차 상승하여 2013년에는 244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66일이 활용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275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국내·외 대회 36개 대회를 포함하여 각종

동호회 행사가 매주마다 열렸고, 주중에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타이어 개발, 스포츠 주행, 고급 차부품 성능테스트 등 다양한 기업행사로 105일을 사용하는 등 연간 275일이 활용되었다.

또한 연중 275일 동안 140천여명이 경주장을 방문하여 130억원 규모의 지역내 직접소비 지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서킷 임대고객 중 87%이상이 광주·전남 지역 외 관계자가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레저 문화시설로 인기리에 운영중인 카트경기장·오토캠핑장·생활야구장 등 부대시설에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방문객들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주장 주변에는 경관숲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경주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중이며, 주민여가 및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해 2016년에는 농구장, 풋살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많은 국제행사 후에 시설의 사후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자동차경주장은 전국의 공공체육시설로서는 드물게 수지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경기장 활용 현황 및 최근 3년간 경기장 운영 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152〉 2015년 경주장 활용현황

	구 분	2015년	2014년	비 고
국제 대회 (준비기간 포함)	전남 AFOS대회	7일	5일	제이스컨설팅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7일	5일	(주)슈퍼레이스
	한-중-일 슈퍼바이크 대회	2일	2일	대한모터사이클연맹
	소 계	16일	12일	
국내 대회 (연습주행 포함)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9일(3전/8전)	6일(2전/7전)	(주)슈퍼레이스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9일(3전/6전)	12일(4전/5전)	(주)이노션
	백센 스피드 레이싱	10일(5전/6전)	11일(5전/5전)	코리아 스피드 레이싱
	코리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6일(4전/4전)	6일(3전/3전)	대한모터사이클연맹
	엑스타 슈퍼챌린지	2일(2전/6전)	6일(4전/5전)	(주)슈퍼레이스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일(3전/6전)	-	핸즈코퍼레이션
	KIC컵(자체대회)	8일(4전/4전)	-	KIC사업소
소 계	46일(24전)	41일(18전)		
오프로드 대회 (연습주행 포함)	KIC 오프로드 그랑프리	8일	7일	KRC
	소 계	8일	7일	
자동차 기술개발 테스트	현대기아차연구소	66일	66일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31일	6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GM	3일	3일	
	타이어 테스트	5일	6일	
소 계	105일	81일		
기업 행사, 동호인주행	기업 행사, TV 촬영	18일	8일	
	동호회 및 팀 임대	24일	49일	
	스포츠 주행	49일	49일	
	안전운전교육	-	9일	
소 계	91일	115일		
국가 및 도 주관 행사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3일	7일	전라남도
	도지사배 오프로드 챔피언십	4일	2일	전라남도
	생활체육행사	2일	1일	
	소 계	9일	10일	
총 계		275일	266일	

〈표2-153〉 영암자동차경주장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입 결 산	2,676,068	3,255,953	3,655,139
세 출 결 산	2,059,915	2,604,294	3,008,129

추진부

F1대회지원담당관 오재선, 대회운영팀장 강희상, 담당자 고민정

#### 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우리 도에서는 경주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2013~2016),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2014~2017) 등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자동차 신차 및 부품 개발테스트 장소로 서킷을 105일간 활용하는 등 고성능 대체 부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시험로 구축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동차 엔진·타이어·내구성 등 자동차 R&D 및 기술개발 테스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듀얼서킷 조성사업’(2015.~2017.)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듀얼서킷이 완공되면 110일 동안의 경주장 추가 활용이 가능하고 12억원의 임대수입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자동차 신기술 개발과 튜닝부품 테스트 서킷으로 영암 경주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부

F1대회지원담당관 오재선, 시설관리팀장 임오중, 담당자 배덕수

## 라. 레저스포츠 활성화

우리 도는 특색있는 지역 관광·문화자원과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레저스포츠대회를 발굴·유치하여 스포츠 관광산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산과 강, 평야와 섬, 테마자전거길을 활용한 산악자전거, 해변 승마, 철인3종경기, 카누,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 10종목, 35개 대회를 개최(2015년 기준)하였다. 특히 승마, 패러글라이딩, 요트, 자전거갤리, 지역문화탐방 청소년자전거캠프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레저동호인 저변확대와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lt;표2-154&gt; 주요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현황

행 사 명	추진시기	장 소	참가인원
아이언맨70.3구레코리아대회	10.2~10.4	구레	1,000여명(37개국)
영산강종합수상레저스포츠대회	5.2~5.3	영암	1,500여명
2015. 임자해변 말(馬)축제	10.17~10.18	신안 임자	1,000여명, 마필 200여두
진도 해안도로 자전거갤리	11.28~11.29	진도	1,300여명
2015. F1스피드 국제자전거대회	5.24~5.25	F1경주장	1,200여명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5.22~5.24	보성군	1,000여명
장보고배 비치발리볼대회	7.25~7.26	완도 신지	1,000여명
순천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11.13~11.15	순천만	1500여명

##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생활체육팀장 강학, 담당자 오문식

## 마. 국제철인3종경기[아이언맨 70.3구레코리아]대회 개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국제철인3종경기인 아이언맨 70.3구레코리아대회는 2014년 10월 구레에서 국내 첫 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이언맨 70.3은 수영 1.9km(1.2마일), 사이클 90.1km(56마일), 마라톤 21.1km(13.1마일)을 달리며 총거리 113km를 마일로 변환한 수치로 하프코스이다.

아이언맨 70.3대회는 매년 전세계 89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풀코스 대회도 매년 41개 도시에서 열리는 매우 인기있는 종목이다.

대회유치를 위해 2014년 1월 아이언맨 아시아태평양지사(USM)를 방문하여 유치조건을 협의하였고 2014년 3월 24일 대회개최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과 2015년 의무개최를 하였다.

2014년 대회는 31개국 545명(해외 109명)이 2015년 대회는 37개국, 573명(해외 213명) 참가하여 국내외 선수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2016년 대회는 9월중 1,500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최초 풀코스대회 개최와 구례를 국내 철인3종경기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부** 스포츠산업과장 나정수, 생활체육팀장 강학, 담당자 오문식

## 5. 경관이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 5-1. 도민 참여에 의한 경관조성 분위기 확산

#### 가. 주민 주도형 경관개선사업 추진

우리 도에서는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2014년 11월 공무원으로만 이루어 있던 ‘좋은 경관만들기 추진단’에 도민 340여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였다.

22개 시군의 읍면동별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은 2014년 11월 활동을 개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3,014건의 경관개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추진단에서 발굴한 각종 경관개선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관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남도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1,666백만원을 투입해 10개 시군 1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에서 발굴한 경관개선 아이디어를 경관사업에 반영하는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경관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800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 시·군 8개소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등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경관개선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경관디자인과장 박수옥, 경관관리팀장 신상식, 담당자 김상중

### 나. 체계적인 경관관광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경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6년 5월 12일 전국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6차례에 걸친 조례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한 결과 타 시도 및 시·군까지 조례제정이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현행 경관법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경관관리에 대한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적기준을 제시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

「경관법」 개정(시행 2014. 2. 7.)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道 조례 일부를 개정(2015. 2. 26.)하였다.

도내 22개 시·군의 경우 2012년 7월까지 경관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道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분리(2013. 1. 10.)하여 별도 구성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크게 높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28명 → 45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다.

전라남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2014. 7.~2015. 11.)하여 전남 22개 시·군의 경관특성을 반영한 경관권역, 경관축,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으며, 전남다운 경관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도에서는 우수 경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해 중국 언론인과 함께 ‘전남 으뜸경관 10선’을 선정하여 관광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활용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디자인과장 박수옥, 경관관리팀장 신상식, 담당자 이원형

#### 다. 도민 공감의 옥외광고문화 정착

우리 도에서는 도시 공간 곳곳에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 있는 옥외광고 간판을 세련된 선진 광고로 개선하고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디자인 능력 향상으로 도시 공간문화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도민과 옥외광고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과 「옥외광고대전」을 개최하여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과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는 2015년까지 7회째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대전은 2015년까지 14회를 개최하여 동심에서 바라본 예쁜 간판그림 등 5개 분야 우수작품 70점을 선정하고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 및 문화개선사업」을 2014년 45개소(2,037백만원), 2015년 46개소(2,256백만원)을 추진하고, 민·관과의 연계 협조를 통해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 2,241천건(고정광고물 3, 유동광고물 2,238), 2015년 7,868천건(고정광고물 4, 유동광고물 7,864)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도는 옥외광고업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 업무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14~2015년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표창(행정자치부, 국무총리) 수상

**추진부** 경관디자인과장 박수옥, 경관관리팀장 신상식, 담당자 김원희

## 5-2. 공공디자인 개발지원 및 산업화

### 가. 통합브랜드 디자인개발 보급 및 산업화

#### 1) 제2회 「2015 생명의 땅 친환경디자인전」 개최

우리 도에서는 전남의 경관·디자인·옥외광고물 분야 사업성과물 및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를 위한 제2회 2015 생명의 땅 친환경디자인전을 201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2015 국제농업박람회장 내 국제관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각 분야별로 개최 해오던 각종 전시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하여 예산절감 및 전시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도민참여 확대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오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회(사업비 181백만원) 개최하여, 310천명이 관람하였고, 2015년에는 나무(木)와 색(色)을 주제로 한 디자인전을 개최한 결과 41,7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2016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 개최를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에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장 내에서 제3회 2016 생명의 땅 친환경디자인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경관·디자인·옥외광고물 정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 2) 통합 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 관리

2010년도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그동안 도 현안사업 및 각 부서의 디자인 개발 요청사업 중 효과와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결과 브랜드 16건, 홍보·시각 7건, 시설물 8건, 기타 6건 등 총 37건 (509백만원)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품격 있는 전남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였다.

지식재산 창출은 차별적인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최근 브랜드 및 디자인 권리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상표·디자인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도가 개발한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52건을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으로 등록하였다. 향후 등록된 브랜드의 D/B 구축 및 정기적인 활용도 조사 등을 통해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디자인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우리 도의 품격 향상 및 권리 보호,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 3) 「지역 토속자원 디자인 상품화」

여수박람회 개최이후 급증하고 있는 여수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토속자원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2016년 시책 사업으로 여수엑스포 역사 내 지역 토속자원 디자인 상품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50백만원)을 추진한다.

타당성 조사의 주요내용은 국내 주류산업의 흐름, 토속주 시장 분석, 주류판매 동향, 소비자 성향 분석, 국내 관광여건 분석, 운영주체, 운영방법,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도 토속주(자원)를 디자인과 접목시켜 한국의 술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시·판매·체험 전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경관디자인과장 박수옥, 공공디자인팀장 김상규, 담당자 김태곤, 박지연

## 나. 친환경디자인 발굴 및 육성

### 1) 친환경디자인 개발을 위한 인증제 운영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우수 디자인의 선정 및 이용을 장려하고, 친환경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녹색디자인 인증제란 명칭으로 전국 대상으로 최초 시행하였다.

2015년 12월 현재 140개 공공시설물 제품에 대해 인증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친환경 디자인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증제품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인증제 신청 자격을 전라남도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여 5개 업체 10개 제품을 인증하였다.

친환경 디자인 인증제품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며, 매년 10월 신청을 접수받아 1차(서류), 2차(현물) 심사를 거쳐 인증 제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기간 중에 인증제 신청 및 인증 제품을 선정하여 박람회장 내에 인증제품 전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인증 제품은 인증서 발급 및 인증기간 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인증제품 전시, 인증제품 홍보책자 제작 및 공공기관, 도내 지자체 등 배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인증제품활용 권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 2) 지역상품 네이밍 및 친환경브랜드 디자인개발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제품 및 지역 특산품의 디자인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상품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사업비 10억원(지특 5억, 도비 5억)을 2016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이 용역을 통해 대내외적인 환경 분석, 아이템 발굴과 지역 상품의 네이밍 및 로고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수립,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 디자인 매니지먼트 제공, 개발 후 양산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경관디자인과장 박수옥, 공공디자인팀장 김상규, 담당자 김태곤

#### 다.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추진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산업통상부와 전남도 주최,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2016년 5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을 주제로 도 농업기술원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0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2년 12월까지 박람회 타당성 조사용역, 타당성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8월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국제행사로 확정되었다.

전남도에서는 2014년 1월 「재단법인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6월에는 국제산업디자인단체 협의회(ICSID)로 부터 국제행사를 공인받았다.

같은 해 7월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박람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2015년 1월에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별도로 전남도 청내에 개소하였으며, 박람회 개최 연도인 2016년 1월에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으로 이전하였다.

박람회는 전남의 친환경 콘텐츠와 국제적 콘텐츠를 융합하고 디자인을 소재로 지속가능한 환경·경제·사회적 미래비전 공유의 장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을 박람회장에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인간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 및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주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전시 스토리에 맞게 공간을 연출하며 전시 매체와 관람객의 참여로 융합된 체험 한마당 구현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전시 공간 주요 연출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시공간	연출계획	비고	
도입부 (환영의 길)	천연염색을 모티브로 친환경디자인 세계로의 진입		
브릿지 (신세계 교향곡)	전남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왕골, 천연염색 활용 오브제 터널		
전시관	1관 (천연염색관)	빛, 색, 스토리와 영상이 결합된 극적 장치 연출	
	2관 (자연자원관)	전남 22개 시군의 자연 자원의 친환경산업화 전시	
	3관 (콘텐츠산업관)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력을 이해 및 자연요소산업화 과정	
	4관 (미래관)	친환경소재를 통한 친환경디자인의 미래가치를 제시	
	5관 (디자인스쿨)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및 디자인 놀이 공간(키즈, 어린이, 학생대상)	
	6관 (라이프투게더)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트렌드경험	
	7관 (남도관)	전남의 문화적, 자연적 자산과 청년정신을 기반으로 미래비전 제시	

이 박람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전남의 생산유발 69,412백만원, 전국의 생산유발 94,649백만원, 전남의 부가가치 유발 36,951백만원, 전국의 부가가치 유발 47,411백만원, 전남의 취업유발 1,408명, 전국의 취업 유발 1,629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부

경관디자인과장 박수옥, 공공디자인팀장 김상규, 담당자 윤영환